

드론·인공위성으로 완도 섬 위치 바로 잡는다

완도군, 전국 최초 섬의 정위치 측량 경계정비 사업 착수



완도군이 전국 최초로 드론과 인공위성으로 섬의 정위치 및 경계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드론과 인공위성 측량으로 완도의 잘못된 섬 위치를 바로 잡는다. 12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은 전국 최초로 해양관광 산업, 해양자원 개발, 해양영토 수호 등 생태적·경제적 가치가 뛰어난 국가 중요 자산인 섬의 정위치 측량 및 경계정비 사업에 착수했다. 섬 정위치 측량 및 경계정비 사업은 지적공부 등록 과정에서 기술력의 한계로 경계나 위치가 잘못된 섬을 드론과 인공위성(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측량으로 바로 잡는 것이다. 완도군은 지난해 시범 사업을 통해 국·공유지인 6개 무인도 위치를 바로잡았다. 또 내부 경계까지 조정해야 하는 2개 유인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완도군은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본부에 전담팀을 구성하고 소유자 간 협의

의 체제를 구성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한 후 나머지 섬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마무리 되면 도서의 위치와 지적공부를 일치시켜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며 “효율적인 국토 관리와 함께 섬 개발을 활성화하고 소유자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해남군과 부산 동래구는 지난 7일 '2020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마케팅 업무협약을 맺었다. <해남군 제공>

해남군-부산 동래구, 손잡고 '관광 마케팅'

업무협약 체결

해남군이 '2020 방문의 해'를 맞아 부산의 중심도시인 동래구와 손잡고 관광마케팅을 펼친다. 12일 해남군에 따르면 최근 명현관 해남군수와 김우룡 부산 동래구청장은 관광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올해 방문의 해 사업을 추진하는 부산 동래구에서 해남군으로 벤치마킹을 은 인연으로 이뤄졌다. 해남군은 부산 동래구와 2020 방문의 해 공동 홍보를 하기로 했다. 양측은 군민과 구민이 올해 1년 동안 지

역을 방문할 경우 주요 관광지 입장료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해남군은 고산유적지와 땅끝전망대·우수영관광지·우항리공룡박물관이, 부산 동래구는 금강공원케이블카가 합인을 적용한다. 또 통일신라부터 존재했던 동래은천이 유명해 11월이면 동래은천 대축제가 열린다. 축제 기간 상호 홍보부스를 설치해 운영하고, 각종 홍보이벤트를 할 때도 협력하기로 했다. 해남 14개 읍면과 동래구 13개 동이 서로 방문하고 우호를 다지는 이벤트도 마련하기로 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남군, 치매 돌봄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챙긴다

치매안심센터, 취약계층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해남군은 독거 치매환자·부부 치매환자 등 치매 돌봄 사각지대 놓인 건강 취약계층을 찾아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남군 치매안심센터는 돌봄사업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발생 우려 대상자를 찾아 발열·혈압 등 건강상태를 꼼꼼히 살핀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대비 마스크, 손 소독용 물티슈도 배부한다.

센터는 독거 치매환자, 부부치매환자, 만 75세 이상 노부부 치매환자 등을 치매 돌봄 사각지대 건강 취약계층 대상으로 특별 관리한다. 낙상·가스 등 위험 요소로부터의 안전과 기초체온 검사·혈압을 측정하는 등 치매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1789명에 대해 개인별 요구사항에 맞춰 물품을 제공한

다. 의료기관·돌봄 서비스 경제·법률적 지원 서비스 등 외부와 연계해 원스톱 통합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맞춤형 치매 돌봄 서비스를 체계화할 것”이라며 “치매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어르신 건강상태,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신중년층 사회공헌 일자리 진도군, 참여자 20명 모집

진도군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한다. 12일 진도군에 따르면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일자리·청년·인구 늘리기'를 군정의 핵심목표로 선정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에 꼭 맞는 일자리 발굴사업 추진한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일자리는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 시점에 따라 퇴직 인력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한 지역사회 내 사회서비스 제공·사회공헌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이다. 쉼비치 진도 개장과 송가인 효과로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지역의 우수한 문화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한다. 참여 규모는 20명으로 이들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내 미술관의 작품 해설과 주요 관광지에 대한 안내 역할을 맡는다. 진도군 관계자는 “대한민국 유일 민속문화예술 특구의 위상에 걸맞은 관광 수요대응 확립과 함께 청년과 노년 사이 신중년에게 맞춤형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완도군, '고독사 지킴이단' 운영...어르신 안전망 구축

완도군이 '고독사 지킴이단'을 운영한다. 노인 인구가 완도 전체 인구의 31.4%를 차지해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다. 완도군은 고령의 어르신이 늘어나면서 별다른 보호망 없이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도 크게 늘 수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노인·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1

인 세대를 대상으로 경제적 빈곤·질병·가족 관계 단절로 인한 사회적 고립 대상자를 조사해 고독사 위험군 79명을 발굴했다. 위험군에 있는 이들을 보살필 고독사 지킴이단을 구성했다. 고독사 지킴이단은 마을 이장, 부녀회장, 자원봉사자 등 78명으로 구성됐다. 고독사 위험이 있는 대상자들과 1대 1

결연을 통해 안부를 살피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독거노인 보살핌과 고독사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혼자 계시는 어르신 사고를 예방하는 등 복지 사각 지대를 상시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어업활동 곤란 어업인 도와드립니다”

진도군, 최대 60일 인건비 지원

진도군은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 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어업 도우미 지원은 어업 대체 인력 일당의 80%(1일 최대 8만원)를 지원해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어업현장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사고·질병·교육·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이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지원 대상은 1주일 이상 진단과 3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연간 최대 30일을, 임신·출산일 경우 최대 60일 간 어업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함께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등 증빙서류를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지난해 17여가 가 혜택을 받았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완도군, LPG배관망 설치...385억 투입

150t 저장탱크·57km 배관망·가스보일러·안전계량기 등

완도군이 LPG 배관망 사업을 추진한다. 12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7일 신우철 군수와 한국LPG배관망사업단, 시행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 단위 LPG 배관망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군 단위 LPG 배관망은 도시지역 대비 취약한 농어촌지역의 에너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완도읍 19개 마을, 4500여 세대를 대

상으로 올해부터 2021년 1월까지 총 사업비 385억 원을 투입해 150t 규모 LPG 저장탱크와 배관망 57km, 세대별 가스보일러 및 안전 계량기 등을 설치하게 된다. 당초 사업비가 341억 원으로 확정됐으나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44억 원의 증액, 보다 많은 세대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